

월 간

제49호 2007년 3월 2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 이달의 말씀 ■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일서 4장 7-8절

편집인 겸 발행인 · 유은상 / 학생편집 기자 · 김다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03-170 대학촌 교회내 / TEL · 888-9111 / FAX · 888-9112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The Way

YOU ARE MY WAY, JESUS †

2007 기독교인 새터

일시 3월 9-10일 (금,토)
장소 왕성교회 (신림역 2번출구)
주최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club.cywor ld.com/snu07
문의 준비팀장 임현우 016 9711 4694

2007 기독교인 새터

- 3월 9, 10일 왕성교회에서 -

“예수여, 당신은 나의 길이십니다.”라는 주제로 기독교신입생 새터가 열린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는 이 모임은 이제까지 기독교신입생 OT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새터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된다. 대학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캠퍼스 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의논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독교신입생들 재학생들 그리고 기독교수들 선교단체의 간사들, 이 모임을 위해서 초청된 여러분들이 함께할 이 모임은 특히 신입생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할 것이다.

연락처 : 임현우 016-9711-4694

"The Day 24 Hours" 은혜 가운데 마쳐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신앙 대 각성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월 5,6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하루를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졌다. 약 50명의 기독교수들과 150명가량의 기독교학생들, 선교단체의 사역자들,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했다. 서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였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2007년 서울대의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서울대학교를 복음으로 빛낸 이진태 동문 소천

대학촌교회 창립에 함께했던 이진태 목사가 76세를 일기로 지난 2월 28일 소천하였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 칼빈 신학대학교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를 받은 이진태 동문은

대학촌 교회, 미국 나성 한미교회, 오렌지 카운티 교회 등을 설립,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였다. 총회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개혁신학 연구원등에서 구약학교수로 섬겼다.



교수칼립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음

질하기를 향한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고전 9:26)라고 하여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다투지 않고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해 달음질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20대를 모두 지식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지식이 저를 자유케

한다고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인해 저는 자유케 될 수 없었습니다. 지식도 돈과 명예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가치였던 것이지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는 우리를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춤추게 할 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입니다. 30세에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방향 끝의 만남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절대적 가치를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에서 처음으로 생수의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영원의 세계에 접붙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영원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서울대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서울대에 보내신 것에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저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3월에는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새 학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중요하듯이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혹은 새 학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에 주는 기독교수의 글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된 삶,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도전의 삶...!!

기독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선배 교수로서 몇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주 안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신입생들과 여러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개발한 본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입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둔 여러분들은 아직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신입생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점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또한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뜻을 더 우선하며 즉,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뜻에 따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나이다. 여러분 삶의 코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 그가 여러분을 연단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시고 능력을 채우셔서 사회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또한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뜻을 더 우선하며 즉,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뜻에 따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신이 세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육신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도전의 삶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이 서울대학교로 인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대학이고,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가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리더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대인의 영향력이 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사회 구성원보다는 리더쉽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훨씬 큰 법인데, 바로 그러한 리더쉽이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회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낳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은 바로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는 교만한 사람, 성공을 경쟁의 논리로 파악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들은 아직 예수그리

도를 영접하지 않은 교수님과 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당신의 뜻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동료와 선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염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서울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부여 받았습니 다. 서울대가 복음화 됨으로 인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새로운 리더쉽 교육이 서울대에서 설립되고 행해지며, 그러한 서울대인의 리더쉽으로 인해 민족이 복음화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비전입니다. 기독교 신입생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동안 이 비전을 향한 부흥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유상임 교수 <공대 재료공학과>

2007년 희망의 꿈을 안고 서울대를 들어서신 새내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오래 전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처음 이 관악캠퍼스를 밟았던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입학할 때는 모두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했기 때문에 모두들 생김생김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때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일단 머리카락의 숫자나 허리 사이즈를 비롯하여 외모부터 엄청나게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 주위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여러 민족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

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에 주력하여 옴으로 자신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경우도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뜻'을 찾기를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소위 말하는 '신이 내린'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입니다. 학부모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서울대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안되고, 부모의 노력만으로도 안되고, 신(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뽑히고 뽑혀서 들어 온 서울대인들이 4년 후 졸업할 때, 또 그 이후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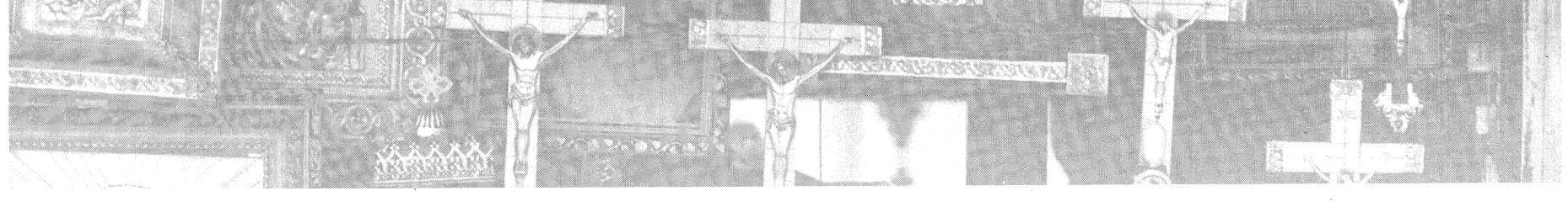
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서 16, 1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궁전에서 선택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

에서 보면 바벨론 국립대학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방신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미디어, 페르시아에 이르는 제국들의 열왕들에게 발탁되어 최고 관

리로서 일을 해 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나이가 80여 세가 되어 사자굴에 던지우는 일을 당하면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우선 범람하는 상대주의와 학문지상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쾌락주의 등의 다양한 세상신화들에 접하게 됩니다. 소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수많은 학생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평생을 자신을 지켜나갈 뜻을 정하여, 50년 또는 60년 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병문 교수 <공대 화학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에 주는 기독교선배의 글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기원합니다.



경기를 즐기는 법

얼마 전 한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름으로만 뵈어진 목사님, 간사님들을 뵈 수 있어 기대가 컸던 그곳에서 눈에 띄는 안내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외활동 시간에는 축구를 할 예정이니 운동복과 축구화를 준비해주시시오.’ 아닌게 아니라 수련회장은 인근 공설운동장에 축구하러 가기위해 버스까지 대절 되어있었습니다. 예보와는 달리 날씨도 매우 화창했던걸 보면 축구 좋아하는 간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팀을 나누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내 제대로 운동하지 않은 저와 일부 학생들의 체력은 오래지 않아 바닥났습니

다. 반면 축구화에 보호장구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일부 목사님, 간사님들은 엄청난 실력과 체력을 보여주셨습니다-입학하셔서 선교단체에 들어가보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20분씩 네 쿼터로 진행된 경기에서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 열정에 할말을 잃을 정도였지요. 청바지 찢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등 계속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번째 쿼터 중 양다리에 쥐가 나 절뚝거리는 저와 몇몇 학생들을 잠깐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힘들다고 가만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 계속 뛰라고. 대신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수비하고 공을 연결 시켜주라고. 사실 축구의 매우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벌떼축구’에만 익숙한 저

와 몇사람은 그 말로 인해 새삼 편안함을 얻었습니다-적어도 저 자신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번 뒤지던 저희팀은 네번째 쿼터 시작하자마자 두골을 연달아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천천히 뛰며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면서 경기를 즐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힘은 빠졌지만 더 소리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말입니다. 여유가 좀 나니 필요할 때마 다른 선수들의 빈자리도 채워주고, 가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경기에 임해서 무작정 뛰어다닐 때는 필드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영역을 가진다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을 때, 생각이 현실이 되리라는 기대감,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감, 새롭게 맺어져 갈 관계에 대한 소망

이 생각합니다. 지식, 관계, 진로, 관심사 등 다양한 필드에 나가면서 말이죠. 종횡무진 공만 쫓아다니기 전에 기억해야 할 자신의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장황한 이 글의 의도도 다 드러난 듯 하군요. 답은 각자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친다고 해서 뛰지 않을 수도 없을 때, 경기는 길어지는데 체력은 바닥날 때 이러한 새김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 밖이라면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가끔 쉬어가며, 필요하면 주변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학생활의 경기를 즐기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며 함께 될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 또한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대학원 전기공 · 서기연 전 중앙위원)



노란 수선화를 받아 들고 대운동장에서 입학식을 치른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후배들이 미래의 자화상을 그리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몇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을 돌아봅니다.

대학 시절 저를 공들여 고민하게 했던 두 가지의 화두는 종교와 진로였습니다. 한가지 더하자면 배우자에 대한 것도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막연한 절대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딱히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들의 초청에도 응하지 못하는 제 마음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국의 혼란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던 시절, 정의의 추구에 대한 마음의 동조와는 별도로 과격한 방법론에 대한 거부감, 그에 대한 대안의 철학적 부재 등으로 인해 마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흑도 백도 아닌 흐릿한 세계관이 못건디게 싫어서 많은 시간을 전공 공부보다는 철학과 성경을 공부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결국 3-4학년을 지내는 동안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 아닌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구석구석 남아 저항하던 옛자아의 모습을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바

뀌 나가며 어느새 뻗속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한대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안정된 세계관 안에서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학시절에 다졌던 신앙의 토대는 삶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청년기이었기에 주어진 원고지를 어떤 이야기로 채울까 하는 고민과도 통하는 진로에 대한 고

disciplinary) 연구가 매우 활발히 장려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문과에 들어간 후 수학은 완전히 끝낼 줄 알았는데, 미국에 언어학을 하러 와서야 수학을 구해서 복습하고 기초 물리학 책을 뒤적거리며, 나아가서 유닉스 매뉴얼과 프로그래밍책을 사다가 밤을 새우는 사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이런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미리 기초를 다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학교 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 봅니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기대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에 바탕한 밝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당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듯 보이더라도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장치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껏해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수준에 머물렀었던 제 자신의 대학시절을 돌아켜 보며, 미래를 이끌어 갈 후배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아닐지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의 대학 생활을 돌아켜 보며 아쉬웠던 점들을 적고 보니, 지금 40을 향해 가는 나의 삶을 20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 돌아켜 보면 그때는 또 어떤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쉬웠던 부분들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믿으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저자 소개 :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은 후 Brown University에서 연구 중. 가족은 남편과 딸, 아들이 있음.

A lamp unto my feet

민이 있었습니다. 10-20년 정도 나보다 앞서 길을 가셨던 mentor를 만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일단 마음의 목표가 정해지면 용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 관심은 있으나 자질의 부족이 걸리는 경우, 그 때가 바로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과를 넘어서, 특히 이과와 문과와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학교의 행정 체제 하에 어느 정도까지 이런 융통성이 허락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학문 풍토는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를 뛰어넘어 범 학제간 (pan-

쉬움이라기 보다는 도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극히 근래의 일입니다. 언뜻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성 인권사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성이 생산적인 사회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노동 문화에 가정 구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각자의 커리어를 쫓아서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와 자녀. 또,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여기 저기 맡겨져 길러지는 영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5월 서울대 영적 각성 및 선교 대회

서기연, 서울대 선교단체, 한국대학교회협의회(가칭), 서울대학교회가 함께 주관하고 서울대 기독교 동문회, 서울대 신우회, 서울대 동문 목사회가 후원하는 5월 서울대 영적 각성 및 선교 대회가 2007년 5월 1(화) - 2일(수)에 열리게 된다 5월 1일의 전체모임은 총장 잔디밭에서 5월 2일 낮 세미나는 교수회관에서 밤 모임은 총장 잔디밭 열리게 된다.

프로그램

* 5월1일 (오후 6시30분), 총장잔디밭

주제 : 각성(참회와 부흥)

1부 : 부흥 한국 찬양집회 (6:30-7:30)

2부 : 설교 - 오대원 목사 (7:30-8:30)

3부 : 부흥 기도회 - 교수 / 교직원 / 학생 / 기독교 동문 (8:30-9:30)

* 5월 2일 : Seminar: 오후12시~4시, 교수회관

대상 : 서울대학 선교에 관련된 분들

전국 대학교회 사역자(경북대, 고려대, 카이스트, 충북대, 충남대 등)

전국 기독교수 협의회(각 학교에서 1명이상 참석)

내용 : 1부 : 식사 및 교제

2부 : 세미나 / 대학 안에서의 선교 전략을 나눔

①교수전도 ②교직원전도 ③과 공동체 ④외국인 학생사역 ⑤대학교회 모델 및 개척 ⑥북한 및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대학교회 개척 등의 주제를 연구 발표 및 토의

* 5월 2일 (오후6시30분), 총장잔디밭

주제 : 선교

1부 : 부흥 한국 초청 찬양집회(6:30-7:30)

2부 : 설교 - 오대원 목사(7:30-8:30)

3부 : 선교 기도회-캠퍼스 선교/북한선교/민족/아시아/열방(8:30-9:30)

서울대학교회 안내

서울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독교수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를 만날 수 있다.

*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주일 오후1:30 26동

2. 영어예배: 주일 오전11:00 26동

3.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6:00 26동

4. 새벽예배: 월-토 오전 6:30 기숙사 920동 지하

수요채플 안내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 장소 : 서울대 26동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신앙 안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관계를 형성케 해준다.

* 일정 :

3월 7일 : 손 종태 목사님(어게인 1907 대표, New Wine 발행인)

3월 14일 : 백광민 간사님(예수 전도단 가정 사역학교 교장)

3월 21일 : 창립감사예배

3월 28일 : 게일 디슨(영국 Nations 대표, 전 모로코 선교사)

4월 11일 : 이동현 목사님(남북 함께 살기 운동대표)

4월 18일 : 김진섭 목사님(백석대학교 대학원장, 구약학)

5월 2일 : 류현주 간사님(이대 다락방 간사)

5월 30일 : 김병로 교수님(서울대 통일 연구소 교수, 전 통일 연구원 북한 연구 실장)

The Day 24 Hours에 다녀와서...

1학년 생활하는 동안 선교단체에서 훈련과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내 비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여유가 없는 탓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또 잘 와닿지 않았습다. 아크로 찬양모임에 가끔씩 참여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2006년 2학기 개강 예배를 참석한 후, 회개와 부흥을 위한 금식기도회가 준비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웬지 모르게 마음에 소망이 생겨 중보기도자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연락처를 적어냈습니다. 그 후 2학기 내내 이 금식 수련회를 위한 기도 편지를 메일로 받게 되었고, 열심으로 기도하진 못했지만 틈틈이 아침 중보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금식해야하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고, 또 내가 학교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

도 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들과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점심까지 총 3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들과 다르게 힘들게 느

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소수 인원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격려해주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한 비전을 놓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이 참 귀하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눈물과 낮아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자체로 저는 이미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감히 간구해보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은혜 베풀어주신 것들과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주제별로 살펴보

았이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되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과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단대별로 기독교인 모임이 있고, 과별로 기독교인 모임이 있는데 만방의 모든 언어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맘껏 느끼고 왔습니다. 그릇이 비록 더러울 지라도 분명 우리 악기와 음악으로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선배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개인적으로 잠시 나태해져있던 과에 대한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07학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07학번이 기대되었고 2007년도가 기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열매로 응답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교수님 한분 한분

간증을 들으면서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학교를 위해 기도했던 그 교수님 한분 한분의 눈물의 씨앗이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더욱더 분발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더욱더 나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고, 모든 순서들이 단지 우리 학교를 위한 회복, 부흥이기에 앞서 나의 회복이었고 부흥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분 한분 간증을 들으면서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학교를 위해 기도했던 그 교수님 한분 한분의 눈물의 씨

사회대 기독인 연합 사역 이야기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제 1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에 부름 받은 모든 기독인들에게도 이 목적과 계명은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서울대 기독인 연합 안에서 단과대학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대 기독인 연합의 모임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소명,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진 모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1997년 2월, 처음으로 '기독인 연합'의 이름으로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수많은 신입생과 재학생 기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연합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일 이후, 사회대에서는 3명의 선배가 함께 모여 사회대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예배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기독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작은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로부터 10년 후, 2006년 2월 4일, 다시 세 명의 사회대 지체가 캠퍼스에서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0-24)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할 것인데, 기독인 모임에서가 아니라 새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 가운데 너희는 나의 빛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이루어지는 새터는 단대별로 학교생활과 대학 문화에 대해서 새내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준비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정보제공이나 유익한 모임보다는 술과 인간 중심, 쾌락 중심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밤새워 놀면서 친해지는 모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즐거운 문화와 대학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각종 사상들이 전달되고, 때로는 광란의 밤이 벌어지기도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아침 당신을 위해서 그 곳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전심으로 당신을 찾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배 가운데 강한 흰 빛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실제로 그 후 사회대 새터 가운데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예배 가운데에서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 곳 가운데 나타내셨고, 10년 전 3명의 기도로 심어졌던 밑알이 20배의 열매를 맺어 60여명의 지체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위해, 서울대 가운데 당신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한 알의 밑알을 들어 예배를 회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동시에 단대 안에, 사랑과 섬김의 회복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작은 규모이지만, 새터에서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새터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꿀물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섬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대 신입생 모집 때마다 학부모 기도실과 길안내, 신입생을 위한 학교 생활 및 면접, 논술 시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학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반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독 학생들이 반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캠퍼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 명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단대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말씀처럼(겔37:11~14), 무너진 단대의 문화들을, 단대의 영혼들을 당신의 손으로 회복하고 계심을 봅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단대 기독인 모임이 진정 그 단과 대학 가운데,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대 기독인 모임이 빛과 진리로 서는 동시에, 이런 모임이길 원합니다. 진리만 옹호하고 증거하는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으로 단대를 위로하고 품으며 섬기는 자로 단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일을 위해서 잠자는 기독 학생들, 교수님들이 함께 깨어 일어나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 교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현재 아직 기독인 모임이 연약한 곳도 있고,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단과대학 모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단과대학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곳을 주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현희(인류04 · 2006년 사회기연대표)

서울대 선교후원과 기도의밤

2007년 1월 27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 교수 회관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서울대 복음화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서울대 기독교수들과 기독학생들, 선교현장에서 일하는 선교단체 간사들, 기독동문들과 대한교회 권속들 약 120여명이 모여 "서울대 선교후원과 기도의 밤"을 은혜 가운데 가졌다. 대한교회 기독교 선교회(이사장 이복영 장

로)가 주관해서 열린 이날의 모임은 예배, 선교보고, 서울대 선교 후원을 위한 헌금, 서울대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식사를 겸한 친교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성현 동문(대학총교회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의 예배에서 박영범 목사(대학총교회)의 설교, 김감찬형제와 이은진자매(음대 성악과)의 특별찬양, 홍종인교수(서울대학교 상임위원, 화학과)의 선교비전에 관한 보고, 김병문 교수의 서울대 교회 사역보고, 임현우형제

(2007 서울대기독인 연합 대표 언어학과 4년), 조연희 자매(2006 사회대 기독인 연합 대표, 인류학과 4년), 김수봉 간사(CCC 간사), 조희원 간사(Joy 간사)의 선교사역보고가 있었다. 이복영 장로의 헌금 전달 순서에 이어 진행된 기도의 시간은 최종근 교수가 그 인도를 맡았다. 대학과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구하였다. 오성종 목사(철학가 동문 칼빈신학 대학교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06 서기연 신입생 OT 간증문

저는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투성이었던 저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벅속에 있을 때에는 제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여러 이유로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하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다니던 교회를 혼자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내내 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보다 오히려 교회 또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불편함과 외로움을 더 깊게 느끼게 해 준 또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진학하고 거기서 만나게 된 친구를 따라 다른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제 상처를 두 손에 꼭 쥐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도 내겐 하나님은 응답 없이 멀리 계신 신이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내게 실망감만 더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과 실제로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차이는 내게 크게만 다가왔고 또 다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제 마음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로는 기대감이 가득하곤 하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대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과 친구를 따라 열렬 결에 가게 된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새터. 당일 알게 되어 간 새터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새터 첫날 저녁 단대별 모임 때, 무작위로 6명씩 모여서 자기소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

다. 남 앞에서 내 얘기하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서툰다고 생각하던 저는 그 날도 어김없이 부담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새 예상보다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했다', '내 친한 친구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꼭꼭 눌러 놓았던 서러움과 슬픔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이야기를 한 터라 그 사실에조차 울컥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울어버린 저를 방금 알게 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서울대에 오게 되고 서기연 OT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한참을 울게 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날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번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내가 몰랐던,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나를 향한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순직한 인도하심으로 3월 안에 C.C.C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서울대학교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점점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다리고 계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게 하심에 매일 감사할 뿐입니다. 대학교에 오자마자 저를 찾아 오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최지은 <06 · 사범대 외국어교육계열>

2007 기독교인 새터 2007년 3월 9일 / 10일

“오 예수여, 당신은

순우(純友 : 순수한 벗 : SNU)에게, 2007년 3월, 다시 관악 캠퍼스에서 함께

3월은 곳곳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3월은,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꿈꾸며, 땅을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거름을 주고 그 땅을 가꿀 수 있는 신실한 농부에게 그 땅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야만, 그 땅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캠퍼스의 기독교인 우리에게 있어서 3월은,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 밭을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토지를 신실한 농부에게 맡기며 그 토지를 가꾸는 작업이 봄에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의 마음 밭 역시 신실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때가

필요합니다. 바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2007년 서울대 기독교인 새터는 우리의 마음 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기독교인 새터는 서울대의 모든 학생, 교수님, 교직원, 간사님들 모두가 함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그 분 안에 '내려놓음'과 '순종'을 배우는 자리, 신입생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새터는 대학 생활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분이 진정 나의 모든 대학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새터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의 처음,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07년 1차 pre새터, 풍경 엿보기



해마다 캠퍼스에는 반가운 봄기운을 몰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씨 물고 건너 온 제비도 아닌, 그들의 이름은 '새내기', 바로 신입생들입니다. 97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인 OT'는 새내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새내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07년부터, '기독교인 OT'가 '기독교인 새터'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개명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학생활을 새로 배운다는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 OT의 '생동감'과 '새로움'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07년 기독교인 새터를 준비하고 새내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서 '서울대 07학번 새내기 기독교인 클럽' (club.cyworld.com/snu07)이 탄생했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수시·정시 응시생들을 만났습니다. 또, 2월 건강 진단을 받으러 오는 새내기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짱구'와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월 15일에 있었던 1차 pre새터는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던 새내기들과의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평범한 강의실이었던 16동 217호는 사랑 넘치는 교제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구완성(약대 05) 형제가 전체 진행을 맡았고, 음기연 지체들의 공연으로 1차 pre 새터, 피자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YWAM 지체들의 워십댄스가 있었고, 조현정

교회에서

나의 길이입니다.”

활하게 된 순우야, 함께 기독인 새터 가자!

순종함으로 한 학기를 보내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요, 또한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간사님들께 있어서 기독인 새터는 캠퍼스라는 직장 생활의 영역, 가르침, 학문의 영역, 사역의 영역 모두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실로 캠퍼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또한, 기독인 새터는 서울대 기독인 모두가 서로 함께 축복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천국 축제의 자리입니다. 기독인 새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교수님과 학생, 간사님과 학생들이 진솔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

며,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특별한 행사 ‘예수님과 함께 춤을’,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나누는 각종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각종 개강모임과 파티 등으로 쉽게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기 쉬운 3월, 먼저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 받을 맡기며,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길이 있는 곳,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은혜를 누리려는 자리로 순우(純友:SNU), 당신을 초대합니다.^^

준비팀장 · 임현우 016-9711-4694
club.cyworld.com / sun07

(교육학과 05)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학생활을 경험한 선배의 생생한 이야기에 새내기들의 눈빛도 한층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내기의 궁금한 질문들을 교수님이 답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을 가진 후 신유진(기계항공 04) 형제의 진행 아래 즐거운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피’, ‘자’, ‘파’, ‘티’ 네 개의 조로 나뉘어져서 게임을 하고 찬양하면서 승부에 상관없이 하나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난 뒤, 피자파티라는 이름에



결맞게 함께 피자를 먹으며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인문대 07 학번 김환순 군은 “신학회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는데 pre새터 덕분에 빛을 찾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계속 주 안에서 행복한 만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pre새터에 대한 감상을 털어 놓았습니다.

1차 pre새터의 감동은 3월 1일 2차 pre새터에서 계속됩니다. 3월 1일 7시,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2차 pre새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울대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집회와 중보기도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도와 찬양의 합주가 07년 기독인 새터, ‘The way’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7 기독인 새터에 즈음하여

2007년이 두 달이 지났습니다. 평양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여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흥의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몇 개의 큰 집회만 있는 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짜를 딱 맞춰서 하시겠냐고 비웃기도 합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던 열정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열정이 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단대 새터 가운데 많은 단대에서 예배를

터에 예배로 응답하고 계시고, 작년에 과기독을 놓고 기도하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서울대를 통해 한국교회와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독인 새터 가운데 신입생의 1/10이 변화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1/10이 결단하고, 각 단대와 단체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서울대를 통해 한국교회와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독인 새터 가운데 신입생의 1/10이 변화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1/10이 결단하고, 각 단대와 단체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대의 경우 학생회 측에서 요청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사회대도 작년에 이어 예배를 드리고, 경영대의 경우 차량을 대절하여 학생들을 수송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학생회에서 예배를 요청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반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문대에 한 지체가 과기독인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한학기가 지나도 모이지 않고 혼자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덧 체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전역한 선배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모임을 세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소식이 퍼져 나갈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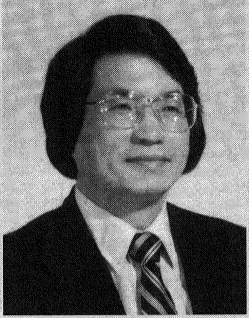
작은 구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참여해 주십시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제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같이 기도합니다. 기독인 새터가 사람이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14]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 사회대에서 예배를 소망했던 적은 무리의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새

임현우 <언어 03 · 2007 서기연 대표>

‘고 이진태 박사의 삶을 추모하며’



고인의 생전 모습

76년의 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이제 그의 주되신 하나님의 부름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개선하신 이진태 박사의 장례식을 위해서 평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의 사신 발자취를 잠깐 더듬어 봄으로 오늘의 조사를 대신하고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초대교회의 목사의 한분이셨던 이수연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나셨는데 부친이 한 때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실 때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의 사역지를 따라 군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의 삶의 회고와 방향하던 시절을 거쳐 1950년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으나 하나님의 강하신 부르심을 듣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종교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그의 대학시절 밤새워 기도했던 에피소드들을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듣게 됩니다. 변환기의 한국지성사의 한가운데 섰던 서울대학교의 소용돌이 치던 캠퍼스에서, 그가 직장으로 섬겼던 학교들에서 유학생으로서 보냈던 미국의 유학시절, 그리고 한국에 돌아 온 후 신학교의 교수와 목회현장에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의 주되신 예수께 자기를 쳐 복종시켜 충성하였습니다. 그가 개혁신학연구원장으로 섬기시던 때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전력투구하시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 교수님들의 봉급을 드리수 없었던 때가 많았는데 어디서 현금이 조금 들어오면 다른 여러 교수님들에게 다 나누어드리고 그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기가 일수였고 어려운 학교의 교수회의 때면 의견이 나누어 격론이 벌어질 때가 많았는데 늘 침착한 태도로 평강 가운데 제쳐서 격론이 다 끝난 다음 함께 기도함시다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면 격랑의

바다가 고요해지듯 늘 잔잔하여졌다고 당시의 교수님들이 그때의 일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짓의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고 억누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방법에 말려들지 않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사람답게 어린아이처럼 진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에 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학촌 교회, 미국 나성 한미교회, 오렌지 카운티 교회 등을 설립, 담임목사로 섬겼습니다. 목회하시던 시절 그의 주되신 예수에 대한 사랑 그의 주께서 그에게 목양을 위하여 맡기셨던 교우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고 그의 전하는 복음은 항상 남다른 권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로 학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시기 전 정신 여자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학교에서 교감을 하였던 이연옥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제일 열심히 가르치고 섬긴 선생님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침 일찍이 학교 교무실에 와보면 어떤 학생이 이진태선생의 책상에 꽃을 꽂아 놓으면 그후에 다른 학생이 와서 그 꽃을 뽑아 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꽃을 꽂아 넣고 그후에 또 다른 학생이 그렇게 하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학생을 사랑한 선생이었고 사랑을 받은 교사였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로 섬기시던 때 가장 어려운 때에라도 항상 예수의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 있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것을 지금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하였던 브란다이스 대학은 유대인들이 설립 운영하는 세

계적의 명문대학입니다. 그곳에서 구약연구하셨고 구약의 전사가 되는 바빌론과 우가렛트 문화와 문자 연구를 주제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부 가장 어려운 주제를 택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까지 불편한 몸으로 창세기 주석 저술에 몰두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과연 교육자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따라나선 후 그의 사랑하는 부인이나 두 딸들을 위해 다른 아버지들처럼 속된 표현으로 호감을 시킨 다거나 풍족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땅의 것에 억매이지 않으신 분의 삶이니 녀넉하지 못하고 구차하고 그러면서 바빴던 삶을 사셨습니다. 한 마디로 고생만 시킨 삶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눈

었습니다.

사케오가 키가 작아서 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의 큰 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케오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장로들은 자기의 키를 사케오보다 더 낮추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의 병상에서의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새은혜를 만나고 있다 내가 새은혜를 만나고 있다'였습니다. 그는 고통속에서 사셨으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은혜에 덧입히여 사셨고 이 은혜에 믿음으로 대답하며 사셨습니다.

그가 뿌리셨던 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100배로 크게 추수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가 충성스럽게 주로 섬겼던 어린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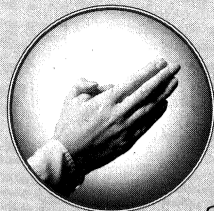
우리도 훗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끝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텐데 그 때 목사님 건너가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주를 먼저 뵈고 또 목사님을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평소에 고인이 애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읽으므로 조사를 끝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8-10

유은상 (대학촌교회 장로 · 본보 발행인)



2007년을 몇 년 전부터 기다려 왔습니다.

Again 1907, 평양 대부흥 등 우리 안에 부흥을 기대해 왔습니다. 10년 전 “부흥”(고형원 작) 찬양이 나왔을 때 보다 더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7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결단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별로 여러 가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서기연의 사역을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지원입니다.

서 네비게이토와 UBF가 함께 홍보와 전도를 놓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 하나는 과 기독교인 모임의 지원입니다. 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임도 있지만, 대표 혼자서 기도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지치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교회 모임과 단체 활동으로 바쁘지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점 생각하면 공부할 시간도 정말 부족한데, 불신자들과 부딪혀 가면서, 예수의 이름 배신치 아니하는 새벽이슬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과라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2007년 캠퍼스에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다양한 지체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울대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단체, 단대모임,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평양 대부흥 당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지성, 개혁 신앙의 장로교와 뜨거운 열정의 감리교가 연합하여 부흥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였다면 결코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대 내에 부흥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어 가야합니다.

이 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함께 하지 못했던 교회 캠퍼스 모임들이 서기연과 함께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문안 교회, 소망교회, 온누리 교회 캠퍼스 모임이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YM의 리더들과 CCC 전도팀이 함께 전도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새터 홍보를 하면

있는 그들을 섬기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킨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연합과 지원, 이 두 가지는 한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단단해진 흙덩이를 부수고, 계속해서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흥의 씨앗을 싹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돌짜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서울대 가운데 눈물로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보낸 2007년이 결코 헛되이 가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기독교인 새터와 개강예배, 그리고 각 선교단체의 신입생 사역과 과기독교인 모임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임현우 (언어 03 · 2007 서기연 대표)

단대 기독교인 모임 소식

■ 인문기연

안녕하세요?

저희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인기연)은 인본주의 총본산인 인문대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독교인의 연합입니다. 이름에서 눈치 채셨을 텐데, 다시 여러 개의 과기독교 모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문과, 영문과(CLC), 국문난장반(하늘시), 공명반, 노어노문과, 언어어울반, 종교상상반, 철학과반(철기), 동양사학과반 등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각 과반별 기독교인 모임과 목요일 인기연 기도회로 정기적으로 모였고, 스케이트장, 롯데월드, 식도록 MT 등으로 모였습니다.

과기독교인 모임은 각 과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성경공부나 책 읽기를 하는 모임도 있고, 또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삶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기독교인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과/반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기독교인 모임을 보면 몽클레해 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인문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 지도록 새터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문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새 대표를 세워주시도록 과기독교인 모임을 중보할 인기연의 대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3. 과기독교 대표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착박한 인문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과기독교 대표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을 통하여 과/반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사회기연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은 지난 07정시 논술/면접고사에서 학부모 기도실을 운영하고, 사회대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3~25일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대 새터로 들어가 꿀물로 섬기면서, 주일(25일)아침에는 새터에 온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졸업식 날에는 지체들이 모여서 선배님들의 졸업을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개강 전 모임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회대(16동) 223호에 동아리방이 생겨서 모임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내기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대학 생활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회대 내에 있는 11개의 과반 중에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반은 3~4개 정도입니다. 각 과/반에 세워진/세워질 기도모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점심모임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12시 50분 / 후생관에서
- 정기모임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12시 50분 / 두레문예관 B102호
- 부흥을 사모하는 수요일 기도회-매주 수요일 오전 8시 10분~8시 50분 / 사회대 233호

■ 간기모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악에서 조금 떨어진 연건캠퍼스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간호대 기독교인 모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자면요~ 연건캠퍼스는 혜화역에 위치한 서울대병원과 함께 의대본과, 치대본과, 간호대 2~4학년, 이렇게 3개의 학과가 병원실습을 위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캠퍼스입니다.^.^

저희 간기모에서는 학과의 특성상 각 학년간의 커리큘럼이 너무 달라서 전체 학년이 함께하는 모임이 사실상 자주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년들끼리는 매주, 혹은 매달 갖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간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건 기독교인 모임을 통해 연건 개강, 종강 예배 및 친구 초청모임 등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관악과 연건의 거리가 저희에겐 크기 때문에 관악에서의 기독교인 모임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끔이나마 이런 기회를 통해 저희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연건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저희 간호대의 귀여운 1학년 지체들이 관악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찬양팀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SNU07 새내기 여러분♡

우리.는. SNU Worshipers 예요)_<!! (슈퍼주니어 버전으로ㅋ)

우리와 늘 함께 동행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래서 놀랍고 위대하신 그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

SNU Worshipers는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서기연)에 소속되어 있는 찬양팀으로 매 학기마다 개강예배, 종강예배

를 기쁨으로 섬기고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외부 찬양사역을 나가기도 합니다 ~^-^/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그 시작을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함으로 함께 하고 싶은 새내기들을 선배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마음이 끌리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새내기 여러분~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신익수 010. 7577. 1663

■ 공기연

1. 소식

공대기독인연합에서는 방학 동안에 신입생들을 위한 사역 위주로 모였고, 열심히 땀흘렸습니다. 수시 정시 오티 때 수험생들을 위한 차 끓여주기와 초코렛과 서기연과 기독인센터 소개, 학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실 운영을 했습니다. 2월말에 있는 공대 새터로도 꿀물봉사를 갑니다. 과음한 친구들에게 꿀물을 타주며 공기연에 대한 소개와 기독인센터에 관한 얘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2. 기도제목

1) 공대새터에서 기독인선배들과 기독인

후배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독인 새터에 관한 얘기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2) 공대새터에서 꿀물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공대 전체에 두루 퍼지도록.

3) 다음학기 각과 기독인 모임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기계항공, 화학생물, 전기컴퓨터, 재료)

4) 아직 과 기독인 모임이 없거나, 아직 모임 여건이 부족한 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건축공학+건축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공학과)

■ 예혼 (생과대 기독인 모임)

1. 새 학기, 07학번들이 입학했습니다. 예혼도 새로운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단대를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지체들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단대를 품어나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세요.

2. 2006-2 종강예배 때 새로 선출된 대표가 처음으로 실제적인 모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서투르겠지만 단대 기독모임을 원활히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지난 해 의류·식품영양학과군 지체들이 몇 명 들어와서 더욱 실제적으로 전체 단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류? 식품영양학과군 06, 07 지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고 의류? 식품영양학과군을 품으며 더욱 은혜롭고 정겨운 예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05 도유록 cyai28@hanmail.net

■ 음기연

음대 기독인 연합(음기연)은 5개의 과 기독인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속한 과 기독인 모임에서 기도와 교제에 힘쓰고, 더 나아가 음기연 모임과 예배를 통해 음대를 품으며 다른 전공의 선,후배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기적인 모임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말씀을 전해주시실 교역자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기독인 예배와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정시 실기고사 기간에는 학부모 기도실을 운영하며 07학번 신입생들

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음기연에 있었습니다.

2007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음대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해 봅니다.

음기연의 새 대표를 위해,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과에 기독인 모임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서로 더욱 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07학번 새내기들도 함께 하여 음대와 과 안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마이크모

안녕하세요. 미대크리스천모임(이하 '미크모')입니다. 미크모에서는 겨울방학동안 여러 지체들이 선교여행이나 수련회 여행 등으로 개인시간을 가지고, 설이 지난 20,21일에 봉천5동의 살림교회에서 '잠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풍성한 식탁교제와 함께 삶을 나누고 미대새터의 예배사역과 개강 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미대 새터가 24,25,26일로 주일이 가운데 끼었는데 처음으로 새터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일정가운데 있다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했지만, 예전

에는 그러한 부타조차 오지 않았는데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07년 부흥의 계절에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대에서 구원받는 영혼과,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개강 전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 영혼을 살리는 공간으로, 특히 신입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애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사랑합니다. ^^

■ 연건기연

연건캠퍼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종로구 연건동에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엔 서울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이 있고 의대, 간호대 학생들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이 곳에서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동이예요. 연건동!! 연건의 기독인들은 각 선교단체(CMF, IVF, JOY, YWAM)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거나 각 학년 기독인모임을 하고 있어요.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치대기독학생회인 DeCA가 활동하고 있구요. 전공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과 공부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는 소속된 선교 단체안에서 양육 받고 훈련하고 있답니다. 연건의 어려운 점은 선교단체 위주로 모이다보니 단대 기독인모임이나 각 학년모임이 많이 약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연합으로 모이기가 힘들고 연기연은 주로 각 선교단체 대표자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한 선교

단체로만 몰리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1. 3월에 연기연의 새대표자들이 잘 세워지고 이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캠퍼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2. 연기연의 소속된 선교단체나 학년모임이나 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3. 연건의 모든 선교단체와 학년모임이 부흥하도록.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각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도록.

4. 우리가 배우고 거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되심이 나타나고 이 학문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5. 연건 땅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 선교단체 소식

■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민족의 가슴마다 피물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 C.C.C에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매주 캠퍼스에서 드리는 예배, 리드릿, 순장교육, 매일 아침 QT모임과 여름에는 전국 C.C.C 여름수련회, 겨울에는 금식수련회, 순장수련회를 통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C.C.C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은 순장님이 있습니다.

순장은 순원의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원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 그 사랑에 당신을 초청하

고 또 그 삶으로 당신을 도전합니다. ^^
- C.C.C에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를 통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훈련받습니다. 캠퍼스 전도, 관계 전도, 선교 등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보아요~

- C.C.C에는, 함께 기뻐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함께 걸어가 줄 형제자매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C.C.C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 동역자를 만나세요!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끈끈한 유대관계와 동역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302호 / snuccc.cyworld.com
국문 05 김다은(010-6301-2387)

■ DFC

사역철학
•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 성령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 예수님을 본받은 봉사의 삶
•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1992년 대학생 예수 제자사역에 헌신된 50여명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교과 선교단체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을 토대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돕기위하여,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신된 삶을 지원하여 모인 예수님의 증인공동체이며, 제자공동체입니다. 본 회의 지향점으로는 첫째,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가에서 지체들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되어 둘째,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특수 사역을 전담한 지체로서 지역교회와 복음적인 선교단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셋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D.F.C. 사역의 지향점인 “하나되어 더불어 땅끝까지”에서 “더불어”는 지역교회와

■ JDM

예수제자운동(JDM)은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성경공부로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던 중에 주님께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비전을 주심으로 그 일을 위하여 모인 작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예수제자운동(JDM)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주고(롬 6:4),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행 2:4),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 인생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될 수



■ 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약자로, IFES라는 국제적인 복음주의 기독교학생운동단체의 소속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여러 대학과 함께 우리나라에선 전국 150개 학교에 IVF가 함께 활동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특히 캠퍼스에 있는 시절동안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힘쓰고 그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평생의 삶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이랍니다.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 IVF”가 비전이지요. 그러면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핵심적인 모임만 간단히 소개할게요.

* 서울대 모든 ivfer들이 함께 모이는 LGM (Large Group Meeting) - 화요일 5시부터부터구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 캠퍼스의 아침을 깨운다! IVF의 심장, 공동체의 발전소! DPM(Daily Prayer Meeting) - 매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이

더불어, 안에서, 위하여 사역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D.F.C.의 모든 지체들은 복음적인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간사들은 교육목사, 전도사, 간사 등으로, 학생들은 청년대학부 임원이나 리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으로, 졸업생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도록 (마 6:30)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제자운동(JDM)의 신조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적 교리들을 지지하며,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서울대학교 모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모임을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중앙대, 총신대와 연합하여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목요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디모데훈련학교(TTS)를 3학기에 걸쳐 훈련하고, 모두가 짝모임이나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에는 서울 및 전국대학의 모임들이 모두 모여 수련회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해외 단기선교여행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연락처: 박재훈간사(010-2204-3590), 기계02 이태화(010-9248-8874) 싸이클럽:snujdm.cyworld.com

름을 부르며 공동체와 사역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의 약속과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에 접붙임되는 시간입니다!

* 서로의 존재만으로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다!! 소그룹-3-5명의 사람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함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권면하며 힘쓰는 모임입니다. 때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함께하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더 깊은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지요!

홈페이지 : www.ivf.or.kr (한국기독교학생회 홈페이지)snuilight.cyworld.com 또는 snuivfsalt.cyworld.com / snuivfphoto.cyworld.com

빛고을 대표 이민혜(조소03) 016-439-2037 소금마을 대표 신유진(기계04) 016-848-1419

■ JOY

조이를 찾아라!! Finding JOY

조이를 찾아라! 사실 조이(JOY)는 어느 곳에도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나 좀 찾아보라고 광명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귀찮음 등이 조이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값진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이는 정말 값지고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이어(JOYer)들 간의 교제와 나눔 속에는 사랑과 기쁨이 담겨있고, 조이안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은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이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이 뭐가 기쁜 일이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주 한번씩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뭣하러 선교단체까지 들겠

는가.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조이나 다른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그 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은 대학 오기 전에 상상하던 것보다 재미없습니다. 대학 오면 맨날 놀 줄로만 알았는데 공부도 해야 합니다. 대학 오면 이성친구도 무조건 생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매일 같이 놀아주고 챙겨주던 선배들의 관심도 3월이 지나가면 시들해집니다. 여러분은 대학생활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JOY. 지금까지 그냥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선교 단체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름에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J 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 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Y ou third	나를 셋째로

이것이 우리 조이어들이 항상 맘속에 두고 살아가는 JOY spirit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기연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 받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섬기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기 위해 1992년 10월 17일 창립된 대학생, 청년 중심의 선교단체입니다. 한기연은 나눔과 섬김 활동을 통해 가난, 빈곤, 장애 때문에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이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누룩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한기연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설교, Lectio Divina, 관상기도, 예수기도,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매주 역동적인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살림’을 통해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리더 훈련을 받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영혼의 거울인 에니어그램을 통한 나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한기연은 사회 양극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주노동자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족 자녀들을 위해 구로 지역의 중, 고생 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매주 월, 수, 금 저녁에 있는 수업에 서울대 한기연 지체들이 자원 활동 교사로 참여합니다. 사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소명을 갖고 있는 서울대 기독교인 여러분, 한기연에서 나눔과 섬김의 예수 공동체를 함께 일구었으면 합니다.

연락처) 김민아: 011-9858-3652 박현익: 019-385-9176

대학촌 신앙생활관 안내

대학촌 교회가 운영하는 대학촌 신앙생활관에 새식구를 모실 수 있는 자리가 8자리 비어 있습니다. 생활관의 생활비는 월 약 15-6만원 정도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기독교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yes421220@hanmail.net/ HP 017-818-0850, 02-8771896, 유은상

■ 인터콧

인터콧 캠퍼스는 21세기,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칼리제이션(globalization=globalization+localization)시대에 전 세계 미전도 캠퍼스(Unreached Campus-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없는 캠퍼스 6000개)를 바라보며 캠퍼스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방의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할 하나님의 일군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선교비전 공동체(Campus Mission Community)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내 모든 기독교단체,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Back To Jerusalem(하나님의 세계경영)의 비전을 공유하며(Vision Movement), 열방을 위해 기도(Pray for Nations)합니다.

■ 캠프 및 정기집회

인카운터캠프, 비전캠프, 선교캠프(여름-대학생), 리더쉽캠프 - 모든 훈련생들과 관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명확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매주 목요일(or 화요일) 전국 29개 도시에서 한국교회의 선교부흥과 세계 열방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와 능력의 예배모임입니다.

■ 훈련프로그램

비전스쿨 - 선교지 현장 중심적인 강의와 종족 소개를 통해 세계 선교의 현황과 전략을 접하고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을 품

■ YWAM

서울대 예수전도단(YWAM)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모토 아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을 열방에 알려 모든 이들을 제자화 하기 위해 각자의 부르심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2006년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대 예수전도단의 지체들은 다른 학교 예수전도단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비전과 전공 별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는 신입생 초청예배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신입생들 뿐 아니라, 예수전도단이 어떤 곳인지, 예배는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모든 신입생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는 선교 훈련과정입니다.

소수민족 세계연대 운동 - 각 대학 캠퍼스에서 소수 민족들의 입장과 복음의 관점에서 이들을 알리고 연구하며, 사역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SM(Student Mission) - 캠퍼스 기독교 청년들이 8개월 혹은 1년간 사역팀을 구성하여 미전도 종족 내의 캠퍼스를 베이스로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합니다.

FO(Field Operations) - 기존의 단기선교와 같이 정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지인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하는 훈련프로그램입니다.

MIT(Mission Impact Team) -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슬람권과 불교권 등과 같이 영적전쟁이 치열한 미전도지역 혹은 국가, 종족 집단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효율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사역입니다.

FR(Field Research) -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프론티어 중심으로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는 선교지 현장 리서치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 - 매일 오전 기도모임(캠퍼스와 열방), 매주 화요일 예배, 매주 목요일 서울 지역 월드미션, 민족연구 및 교회개척 훈련 - 학생 대표 : 이명심 (노문 02) 010-6686-6786

* 인터콧 캠퍼스(www.intercp.net, or club.cyworld.com/intercpcampus)

2007년 1학기에는 서울대 예수전도단에 새로운 대표와 간사님이 세워지고, 새로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 있고, 그 인도하심을 좇아 나아가겠지만, 많은 기도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마다 28동에서 예배를 드려요. 캠퍼스 안에 있는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7호선 중곡역에 있는 한국중앙교회에서 서울대학사역에 속한 모든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모여 Campus Worship이라는 연합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모임, 점심마다 중보기도모임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 연락처 - 하이얀 : 011-9548-7838
이예은 : 011-9865-4153

■ 탐방

신림 2동의 언덕 대학촌 교회의 옆에는 주위의 고시원과 원룸 건물과는 사뭇 다른 풍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소 허름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대학촌 교회 형제 생활관입니다. 비록 생활관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고 볼 품 없어 보이지만은,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생동감 있고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그리스도의 숨결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귀합니다.

생활관은 형제 생활관과 자매 생활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매 생활관은 형제 생활관보다는 아래쪽에 위

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촌 축구 선교회 설립에 형제 생활관이 주축이 되어 축구 등 각종 운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 단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형제와 자매, 고시와 대학 간의 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어울리거 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는 그리 인기 있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새벽기도와 말씀, 그리고 훈련이라는 키워드로 통하는 생활관은 대학의 자유로운 젊은이들에게 부담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촌 신앙생활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시편 133:1

생활관은 단순한 기숙사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치하고 있습니다. 형제 생활관은 다시 고시 생활관과 대학 생활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시 생활관은 고시를 준비하는 형제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대학 생활관은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인 형제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자매 생활관은 그 규모 인해 고시 또는 대학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촌 교회의 유은상 장로님과 김옥희 집사님이 생활관 관장으로 수고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운자 권사님께서 음식 준비 등 생활관의 살림을 맡아주고 계시는데 솜씨 좋은 권사님의 덕분에 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끼니 때 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활관의 자랑입니다.

생활관은 단순한 기숙사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로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며, 주중에 기도회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말씀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촌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늘 솔선수범

러나 이곳의 인내는 잠시이며 그 열매는 너무나 크고 영원하다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생활관의 존재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옵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힘들어 할 때 손을 내밀며 중보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것인지 이곳 생활관의 형제자매들은 오늘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이곳 생활관을 거쳐나간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쌓이고, 젊은 시절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은 우리 생활관의 형제자매들이 사회로 더욱 많이 진출한다면 분명 이 나라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대엽(법대 졸,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

알림 / 지난 2006학년도 본 “진리는 나의 빛” 편집기자로 수고하였던 언어학과 임현우 형제가 서기연 대표를 맡음에 따라 2007년도에는 국문학과 김다는 자매가 “진리는 나의 빛” 편집기자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우 형제의 이제까지의 노고를 인해서 감사합니다.